

정지용의 후기 시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적 사유 고찰*

— 절대적인 수동성(순종)으로서 견딤의 정신을 중심으로

金貞秀**

I. 서론	III. '추위/흰빛'의 모티브와 순종으로서 견딤의 정신
II. 미학적 성육신으로서의 시적 정신주의와 '제약을 통한 비약'의 신학적 의미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정지용의 후기 시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의 독창적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흔히 '정신주의'라 불리는 정지용의 시론에는 미의 종교성에 대한 확신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시는 무엇보다 절대자와 자아의 관계를 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시인은 유한한 사물을 통하여 무한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적 정신주의의 골자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미적 사유를 넘어 신앙에 대한 성찰과 깊이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정신주의는 고난을 인내하며 존재의 유한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만 무한한 존재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유를 내재한다. 정지용의 후기 시문학을 대표하는 「백록담」, 「장수산」 또한 그러한 성찰을 시적 주제로 삼고 있다. 즉, 후기 시문학에서 정지용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초월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값싼 위로나 거짓 충만함으로 망각하려는 시도마저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 A17046942)

**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거부하고, 묵묵히 순응하고자 하는 태도의 가치를 탐색한다. 이른바 견딤의 정신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무한에 이르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이다. 신이 부재하는 당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론적인 허무와 담담히 마주하고자 하는 저 종교적 태도야말로 본고는 정지용이 후기 시문학을 개진하는 동안 고심했던 신학적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정지용, 후기 시, 기독교적 사유, 순종, 견딤, 신학적 주제

I. 서론

정지용의 시세계는 초기 이미지즘 시에서 중기 종교시를 거쳐 후기 산수시로 나아갔다. 여기서 『백록담』을 중심으로 하는 후기 시세계는 이전 시기와의 단절적 관계 속에서 주로 유가적 형이상학과 동양적 미의식을 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에 속하는 연구로는 흔히 최동호의 논의를 꼽는다. 그는 중기시에서 후기시로 이행하는 정지용의 시적 변모 과정을 가톨릭시즘에서 동양적 정신주의로의 침잠으로 요약하고, 산수화적 수법의 차용을 통한 ‘은일’의 정신 추구를 후기시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서구 모더니즘이나 가톨릭시즘이 아니라 유가철학의 성정론을 시적 근원으로 삼음으로써 정지용의 후기시는 전통미학의 현대적 변용이자 계승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논의의 골자이다.¹⁾ 이후 전통사상(미학)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후기시를 설명하려는 논의가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다양한 주제로 변주되어 상당한 성과를 이룬다.

그러나 이 주류의 관점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정지용 시세계의 변모과정을 지나치게 단절적으로 이해한다. 특히 중기시와 후기시를 이항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정지용의 후기시가 “가톨릭 신앙의 전면적인 포기”를 뜻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의 시각이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된 결과이다.²⁾ 이는 ‘서구/동양, 근대/전통, 종교/시’ 등의 이분법을 고착시키고, 시 해석을 단조롭게 한다. 정지용의 시세계에는 서구정신과 동양정신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으며³⁾ 시기별 특징을 단절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시적 변모의 근거에 대한 추적을 사실상 생략한 것과 다르없다는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⁴⁾

둘째, 시화일여로 대표되는 동양 미학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시적 측면이 후기시에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러한 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정지용의 시세계에서 ‘산수’는 자연과 합일(친화)함으로써 초월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 물아의

1) 최동호, 「산수시의 세계와 은일의 정신」, 『민족어문연구』 1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정지용의 산수시와 성정의 시학」, 『한국어문학연구회 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03.

2) 최동호, 위의 논문, 50면.

3) 진림, 「정지용 시론에 나타난 전통지향의식」, 『문예시학』 27, 문예시학회, 2012.

4) 김유중, 「정지용 시 정신의 본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경지 등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조 지식인의 교양과 기품을 지향하며 전통에 몰두했던 문장파의 이병기, 이태준 등과 차이 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 논의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⁵⁾

셋째, 후기시를 해석하는 가늠자로 동양적 세계관에 의존하는 주류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정지용 시론과의 ‘괴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지용은 「시의 옹호」에서 “시가 은혜로 받은 것일바에야 시인도 신의 허여하신배 아닐 수 없”으며, “그러므로 신앙이야말로 시인의 일용할 신적 양도”라고 말했다.⁶⁾ 그의 시론을 주의 깊게 살핀 최승호는 주로 동양사상과 연결되어온 정지용의 정신주의가 사실은 가톨릭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본질시학이라고 주장했다.⁷⁾ 후기시 창작과 시론 발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후기시와 가톨릭시즘 사이의 연관성을 애써 축소하거나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선행 연구의 주된 시각이 지닌 저 세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기독교적 세계관과의 접점 속에서 정지용의 후기시가 지닌 독창적 면모를 밝히려는 시도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최승호는 그의 시가 정경교용이라는 동양적 미의식을 토대로 하면서도 생명력이 심히 위축된, 자아와 세계의 상호 축소적 교감을 보이며, 이는 “자아와 자연물을 성경적으로 본 데 기인한다.”라고 주장한다.⁸⁾ 금동철 또한 ‘결핍으로서의 자연’이 정지용 후기시의 주된 소재이며, 이는 자연조차 타락했다고 보는 기독교적 시각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⁹⁾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정지용의 자연의식과 가톨릭시즘과의 연관성을 해명하는 데 그친다. 시적 정신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할 기독교적 세계관을 ‘자연관’ 정도로 한정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5) 김정현, 「정지용 후기 시에 나타나는 '자연' 이미지의 다층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9,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배호남, 「『백록담』의 시형식 연구」, 『한국시학연구』 35, 한국시학회, 2012.
 6) 정지용, 「시의 옹호」, 최동호 편, 『정지용 전집 2』, 서정시학, 2015, 569~570면. 이후 정지용의 시와 산문의 인용은 이 전집에 따르며, 본문에 (권:면)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7) 최승호, 「정지용 자연시의 은유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1, 한국시학회, 1998.
 8) 최승호, 위의 글, 381면. 394~399면.
 9) 금동철, 「정지용 후기 자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007, 499~502면, 508.면; 「정지용의 시 『백록담』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우리말 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이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논의가 바로 남기혁과 허윤의 연구이다. 남기혁에 따르면, 1930년대 중반 무렵 정지용은 종교시 창작을 통해 기독교적 사유의 특징인 “주인임을 포기함으로써 주인(주체)으로 남아 있게 하는 정신적 역전”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동양화론 서론’에 의거한 후기시의 독특한 주체성(‘보는 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¹⁰⁾ 허윤은, 가톨릭적 세계관과의 일방적인 파생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지용이 나뉠의 시 창작 방법론을 모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순교성인의 의식구조를 기독교적 시학 원리로 치환했다고 주장한다. “정화+상실⇒상승”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미적 원리는 중기에서뿐 아니라 후기 정신주의의 사상적 바탕이자 시의 주요 미학이 된다.¹¹⁾ 이들 논의는 공통적으로 중기 종교시와 후기 산수시 사이의 연속성을 탁월하게 설명해낼 뿐 아니라 『백록담』의 시편에 자연관 이상의 기독교적 사유가 내재해 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본고는 정지용의 후기 시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을 살피고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되어온 종교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정지용의 시론을 중심으로 정신주의에 깃든 신학적 성찰을 탐구하고, 이전 시기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기독교적 모티브를 통해 후기의 산 연작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그의 후기 시문학에 대한 해석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Ⅱ. 미학적 성육신으로서의 시적 정신주의와 ‘제약을 통한 비약’의 신학적 의미

주지하다시피 정지용의 후기 시문학은 대체로 동양사상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시론으로 개진되는 정신주의는 정지용의 시세계가 기교(형식) 중심의 서구추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나뉠의 대안으로 동양적 미의식을 탐구하

10) 남기혁, 「정지용 중·후기시에 나타난 풍경과 시선, 재현의 문제」, 『국어문학』 47, 국어문화회, 2009, 114~117, 125~126면.

11) 허윤, 「정지용 문학의 가톨릭시즘과 역사의식」,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기 시작했다는 주장의 핵심근거로 언급되고는 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론을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기존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요소가 산재해 있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적 정신주의에 대한 시인의 사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아래 인용문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시의 고덕은 관능감각이상에서 빛나는 것이니 (……) 그 생리를 밟고 일어서서 인간적 감격 내지 정신적 고양의 계단을 올르게 되는 것이 자연한 것이요 필연한 것이다. (……) 거역히 시의 Point d'appui(策源地)를 고도의 정신주의에 두는 시인이야말로 시적 상지에 속하는 것이다. (……) 이리하여 시인 영량은 차차 나이가 차고 생활에 젖고 지견을 얻자 회오 갈양 체관 해겁 기원의 길을 아깃자짓 밟어가는 것이었다.

- 「시와 감상: 영광과 그의 시 2」(2:130~132)

㉡ 시인은 구극에서 언어문자가 그다지 대수롭지 않다. 시는 언어의 구성이 기보다 더 정신적인 것의 열렬한 정황 혹은 왕일한 상태 혹은 황홀한 사기임으로 시인은 항상 정신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을 조준한다. (……) 정신적인 것의 가장 우위에는 학문, 교양, 취미 그러한 것보다도 「애」와 「기도」와 「감사」가 거한다. 그러므로 신앙이야말로 시인의 일용한 신적 양도(糧道)가 아닐 수 없다.

- 「시의 옹호」(2:570)

㉢ 시인이 더욱이 이 시간에서 인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괴롭게 삶을 보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에 주력하며, 신과 인간과 영혼과 신앙과 애에 대한 향시 투철하고 열렬한 정신과 심리를 고수한다. 이리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점점 단이 승진되는 일개 표일한 생명의 검사로서 영원에 서게 된다.

- 「시와 발표」(2:566)

1939년 『여성』 3권 9호에 발표된 ㉠에 따르면, 시가 “정신적 고양의 계단”을 차츰 밟아나가며 감각 묘사나 감정 토로 이상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한 것”이며, 이처럼 육체적인 것 이상의 것을 목표로 삼는 “고도의 정신주의”야말로 관능감각에 함몰된 시, 선읍벽의 취미를 가진 데카당, 설교·훈화·선전 따위를 시라 우기는

문학적 경향보다 “시의 상지”에 속한다. 여기서 시인은 시가 밝고 올라가야할 정신적 고양의 계단으로 “회오, 갈양, 체관, 해집, 기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이 길을 좀 더 자세히 풀어쓴 것이 1939년 『문장』 5호에 실린 ㉠과 『문장』 9호에 실린 ㉡이다. ㉠에 따르면, 시는 언어의 구성이기 이전에 “정신적인 것”의 열렬하고 왕일하며 황홀한 상태이므로 반드시 “정신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을 조준”해야 한다. 특히 “학문, 교양, 취미 그러한 것보다도 「애」와 「기도」와 「감사」” 즉, 종교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에서도 계속된다. 시인이 반드시 가져야할 인간에의 집착, 이 고통스러운 삶과 현실을 어찌 살아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신과 인간과 영혼과 신앙과 애에 대한 항시 투철하고 열렬한”, 질문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인이 매일 섭취해야할 정신적인 양식으로 ‘신앙’을 꼽는 이유가 여기 있다.

정지용의 후기 시문학을 대표하는 산문인 ㉢, ㉣, ㉤의 언급들은 그의 시적 정신주의가 동양적인 미의식만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연, 인사, 사랑, 죽음 내지 전쟁, 개혁” 더 나아가 “학문, 교양, 취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의 이면에 숨겨진 뿌리처럼 있는, ‘절대자’에 대한 지향과 관심을 정지용은 숨기지 않는다. 적어도 위의 인용문에서만큼은, 우수한 시인의 존재론적 조건으로 종교성을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와 시인에 대한 정지용의 이와 같은 사유는 종교야말로 ‘궁극적 관심’이라고 한 폴 틸리히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진리와 자유, 삶, 아름다움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관심은 결국 신에 대한 관심과 질문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종교는 정치·경제·철학 등과 병렬하는 문화적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관심’으로서 그러한 문화의 바탕에 놓인다.¹²⁾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정신주의 또한 절대자(와 자아의 관계로서 신앙)에 대한 사유를 ‘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정지용이 시와 종교를 분리된 문화적 형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시의 심층에 신앙이 놓여 있다는 식으로, 즉 ‘시/종교’를 ‘표면/깊이’의 관계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손호현에 따르면, 예술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유형론적 사유로는 동일기원론, 예술종언론, 예술구원론, 예술표현론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예술표현론은 예술을 종교적 진리의 가장 중요한 성육신(Incarnation) 양식으로 보는 사고방식을 뜻한다. 예술

12) 손호현, 「아름다움과 성스러운: 존재 유비로서의 예술과 예수」, 『신학사상』 165, 2014, 200면;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512면.

과 예수는 성육신이라는 존재 유비의 구조를 가지며 예술은 세계 속 하나님의 성례전적 현존을 가능케 한다는 입장이 바로 예술표현론이라는 것이다.¹³⁾ 시몬 베유는 미의 종교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답다는 순수하고 확실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 속에는, 실제로 신이 현존한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속에는 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며, 미는 그 표시”이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것은 물질 속에서 나타난 신의 확실한 현존이고, 아름다운 것과의 접촉은 언어의 완전한 의미에서 성사(聖事)”일 뿐 아니라 “아름다운 것은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체험상의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최고의 예술은 모두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¹⁴⁾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의 관계에 대한 시몬 베유의 사유와 흡사한 사고가 정지용의 시적 정신주의에 깔려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㉔ 제약을 통하지 못한 비약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이다. 가장 정신적인 것의 하나인 시가 언어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차라리 시의 부자유의 열락이요 시의 전면적인 것이요 결정적인 것으로 되고 만다. (……) 시의 신비는 언어의 신비다. 시는 언어와 Incarnation적 일치다.

- 「시와 언어」(2:648-649)

시 창작의 요체를 ‘제약을 통한 비약’으로 규정하는 ㉔에서 정지용은, 가장 정신적이며 무한한 시적 본질(시)이 유한한 언어에 깃드는 원리를 “Incarnation적 일치”라 설명한다. 『종교학 대사전』에 따르면, 성육신, 육화 등을 뜻하는 기독교적 용어로서 ‘Incarnation’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로고스)의 살이 되어서 우리들 안에 머물렀다.”라는 구절에 유래하며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기독교의 근본 교의를 뜻한다. 시(무한)와 언어(유한)의 관계를 성육신에 빗대어 풀이하는 ㉔의 언급은 예술(시)을 성육신의 미적 양식으로 이해하는 시몬 베유의 사유와 거의 일치한다. 정지용에게 개개의 시작품은 무한한 정신이 유한한 것에 함축된 어떤 것(마치 절대자로서의 신이 나약하며 유한한 인간으로 육화한 예수와 같이 무한과 유한이

13) 손호현, 앞의 논문, 179~180면.

14) 시몬 베유, 이희영 역, 『중력과 은총』, 동서문화사, 2017, 160~162면.

만나 이루어진 어떤 것)이며 그러므로 시작(詩作)은 유한한 것(제약)을 통해 무한한 것을 드러내는(비약)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미의 종교성에 대한 정지용의 사유, 이를테면 “신은 애로 자연을 창조하시었다. 애에 협동하는 시의 영위는 신의 제이창조가 아닐 수 없다.”(「시의 옹호」, 2:571)에서 처럼 신의 창조성과 인간의 상상력의 유비관계에 대한 인식의 이론적 토대는 그의 학위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지용에 따르면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적 상상력은 “물리적인 대상들 뒤에 감추어진 실제의 형상과 진리를 인식”(2:355)하는 것을 추구했다. 그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도 내재하는 정신”(2:356)과 “시공으로 제한된 현세 뒤의 영원한 세계”(2:359)를 포착하고자 하였으며 그래서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하나의 들꽃에서 천국을 보도록/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한순간의 시간 속에서 영원을 포착하라.”(2:363)라고 노래했다는 것이다. “상상력은 신의 실체”이자 동시에 “상상력이란 ‘인간 존재 그 자체’”이니 “예수와 시의 정신이 동일”(2:364~365)하다고 생각하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술가는 유한한 것에 깃든 무한한 신성을 노래하는 구도자이며, 시는 모래알과 들꽃, 찰나 등 유한한 것으로부터 무한(영원 혹은 성스러움)을 표출하는 아름다움이다.¹⁵⁾

이와 같이 시작(詩作)을 무한과 유한의 “Incarnation적 일치”로서 ‘제약을 통한 비약’으로 이해하는 정지용의 시론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상상력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아름다움의 근원에 대한 사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약을 통한 비약’으로서 정지용의 시적 정신주의는 삶의 비극성(숙명적인 유한성)을 통해서만 무한한 무언가에 가닿을 수 있다는 기독교적 성찰과 관련 있다.

㊦ 어떤때 혹 곤난과 역경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조흔일이니, 연고는 자
조 사람을 회심하도록 부름이오 그로 인하여 자기가 귀향에 잇슴을 깨닫고 자
기의 희망을 세상 어떤일에도 두지아니함이로다.

- 「그리스도를 본받음」(2:402)

15) 손호현에 따르면, 예술과 예수가 성육신이라는 존재 유비의 구조를 가진다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움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손호현, 앞의 논문, 179면, 209~210면.

㉞ 오흠다 얼마나 엄하고 자기를 버리는 생애를 성부들이 광야에서 보내었
던고! 얼마나 오래고 중한 유감을 견디었던고! (……) 박그로 궁핍하였으나 안
으로는 성총과 거룩한 신락으로 충만하였도다. (……) 자기들 자신으로는 아조
아모것도 안인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세속에서는 업수히녁임을 바닷스나 천주대
전에는 귀중하고 사랑스런자가 되었도다. 진실한 겸손에 처하였으며 순박한 복
중에 살았으며 애덕과 인내에서 행동하였도다.

- 「그리스도를 본받음」(2:412~413)

위의 두 인용문은 독일의 성직자이자 신비주의자인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
를 본받음』 일부를 정지용이 직접 번역하여 『가톨릭청년』에 실은 글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가짐부터 성부의 표양까지 신앙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특히 강조되는 것은 유감과 환난을 인내하고 견디며 끝끝내 순종하고
자 하는 마음이다. 이 글에서 삶의 고난은 인간을 신에게로 이끄는 “귀향”의 과정으로
규정된다. 참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 견디기 어려운 무력감 속에서 “자기를 버리는
생애”(순종)를 살아내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은총의 거룩한 희열로 충만해질
수 있다.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묵묵히 받아들일 때, 무한한 존재와의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용의 ‘제약을 통한 비약’을 연상시키는 이 신학적 사유는 이른바 ‘어둔 밤’에
대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성찰과 흡사하다. 신과 인간의 신비한 결합을 깊이 사유한
그는 영혼이 절대자에게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른바 ‘어둔 밤’을 꼽는다.
‘신/인간’의 절대적인 거리감에 직면하여 신이 부재한다며 절망할 때, 영혼은 텅 빈
듯한 공허와 오직 홀로 버려졌다는 극한의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러나 나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한 상황을 통해서만 영혼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마주 닿음이 오로지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¹⁶⁾

이 ‘어둔 밤’을 누구보다 간절히 요청했던 시몬 베유도 “고통과 극도의 피로가
덮쳐서 영혼 속에 이 상태가 끝없이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무한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가만히 응시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에

16) 유재경,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 한국기독교학회,
2010, 317~318면.

이른다.”라고 말한 바 있다. 마치 십자가의 성 요한처럼 시몬 베유는 은총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온전히 비우는 “어두운 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극한의 한계와 맞닥뜨려 인간이 겪게 되는 텅 빈 공허의 체험(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무력하며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경험)은 고통스럽지만, 그 공허함을 채우지 않고 텅 빈 채로 남겨둘 때(“비움 받아들이기”) 오히려 초자연적인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¹⁷⁾

이처럼 시몬 베유는 인간의 실존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공허’를 함부로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거짓으로 위안하여 자신의 고통을 달래려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인생의 모든 재앙을 알몸 그대로 아무런 방비 없이” 마주하고자 노력했을 때, “인간은 무가 될 때까지 작아지며, 영원에 이르는 문도 그곳에서 열린다.”¹⁸⁾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㉔과 ㉕처럼 현실의 고통을 회피(초월)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순종의 태도이다. 본고는 신의 부재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자아’의 간극에서 비롯하는 존재론적인 허무와 마주하여 담담히 메마르며 고갈된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는 저 종교적 태도야말로 정지용이 후기 시문학을 개진하는 동안 고심했던 신학적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Ⅲ. ‘추위/흰빛’의 모티브와 순종으로서 견뎌의 정신

동양의 미의식을 중심으로 정지용의 후기 시세계를 살필 때 주로 언급되는 것은 ‘초월성’이다. 산수라는 초월적 공간에 은거하여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함으로써 세속(비에·갈등·고난)과 절연하고자 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그의 후기 시문학을 오로지 동양적 초월 관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주류 해석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 가운데 특히 남기혁은 정지용의 후기 시세계를 동양적인 것으로 한정할 경우, ‘전기/후기’의 단절적 관계를 지나치게 부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¹⁹⁾ 실제로 동양적 미의식에 의존하는 논의의 대부분은

17) 시몬 베유, 앞의 책, 20~21면, 23면, 31면, 37면.

18) 시몬 베유, 앞의 책, 586~588면.

19) 남기혁, 앞의 글, 125면.

산수시를 이전 시기의 시문학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다룬다. 이 과정에서 잊히는 것은 초기 이미지즘 시세계에서 종교적 시문학을 거쳐 후기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온, 정지용 고유의 시적 모티브이다. 이른바 후기 산 연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추위’와 ‘흰빛’의 이미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 음침한 붉은 벽돌 건물 아래에 우두커니 서/진흙과 薔薇와 찢어진 구두의 詩를 피하고 있다.//강아지의 靑靑한 情熱에 젖어 젖으며/여기 저기 나뭇굴고 온 뒤/(……)//흄뻑 젖어 별별 떨어져/溫室과 사랑과 양초 불빛을 계속 원망하고 있다.

- 「비에 젖어」 부분(1:277)

㉡ 이국 하늘 아래 정거장 대합실이 묘한 가정처럼 참을 수 없이 그림다. (……) 일어서서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구석구석까지 헤맨다. (……) 저 소박한 피부를 만지고 싶다. 피부. 피부. 알몸인 인류의 피부가 아니라면 어찌 이미칠 것 같은 사랑을 말할 수 있는가! (……) 머리를 함께 맞대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처럼 새근새근 잠잘 수 있을 것 같다.

- 「정거장」(2:310)

㉢ 그가 목련화나무 알로 고전스러운 책을 들고보며 이리저리 걷는다니보담 들고 도는 것이 코끼리가치 상가롭고도 발소리업시 가비여웠다. (……) 아츰에 이마를 든 해바라기꽃은 오로지 태양을 향해 돌거니와 이이는 뉘를 향해 보이지 않는 백금원주를 고요히 짓느뇨?

회의증스런 발은 다시 멈칫하였다. (……) 그날의 나는 금단초 다섯개 단 제복의 햄리트이었다. (……) 날 듯한 오식 성당은 오늘도 놓구나! 기폭을 세인 마스트갓흔 침탑! 어르만질 수 업고 폭 안기일 수도 업는 <거대한> 향수여! 뒤로 돌아 깎겨올라간 둥근 돌기둥 그늘진 구석으로 들어가 압길에 비를 내여다 보는 나그네처럼 화강석 차디찬 피부에 뺨을 부비고 잊었다.

- 「소묘 · 1」(2:45~47)

㉣ 바다는/푸르오/모래는/희오, 희오/水平線우에/살포-시 내려안는/正午 한 울/한 한가운데 도라가는 太陽/내 靈魂도/이제/고요히 고요히 눈물겨운 白金뺨이를 돌니오.

- 「바다 1」(1:128)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정지용의 초기 시세계를 대표하는 모티브는 「카페·프랑스」의 “이국종 강아지”, 집도 나라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이방인)로서 ‘우울한 산책자’ 이미지이다. 「카페·프랑스」에서 시적 자아는 “오오 異國種 강아지 야/내 발을 할터다오.”(1:38)라며 뿌리 없이 부유하는 자신의 처지(떠돌이)를 한탄하는데, ㉠은 이러한 상황을 잘 형상화한 시 중 하나이다. 이국종 강아지(이방인)처럼 우울하게 도시를 떠도는 산책자 모티브와 오한의 모티브가 결합해있는 이 시에서 시적 자아는 “진흙과 薔薇와 찢어진 구두의 詩를” 피하며, “강아지의 녹녹한 정열”에 휩싸여 도시 곳곳을 나뒹굴다가(산책) “붉은 벽돌 건물 아래에 우두커니 서” 별벌(추위) 떠난다. 이때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건물 ‘안’의 “사랑과 양초 불빛”이다. 저 따뜻한 세계에 이르고 싶으나 이를 수 없으니 시적 자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원망”하며 추위에 떠는 것밖에 없다.

㉠을 통해 보건대, 초기의 정지용은 세계를 ‘안/밖’의 적대적인 관계로 나누고 스스로를 ‘바깥’에 위치시킨 후 ‘안’과의 마주 닿음을 갈망한다. 이를테면, 1926년 4월에 발표된 산문 ㉡에서 시인의 정처 없는 발걸음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구석구석까지 헤맨다.” 그는 이름조차 모르는 이의 “소박한 피부를 만지고”, 맨몸으로 서로를 어루만지며 “머리를 함께 맞대기라도” 했으면 하는 욕망을 스스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 마주 닿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자아(시인)는 참을 수 없는 추위에 휩싸인다. 그런 의미에서 ‘추위’는 견고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혹은 두 세계의 이분법적 단절감에 내몰려 있다는 절망적인 인식 그 자체이다. 그것은 ‘안/밖’으로 나뉜 두 세계의 맞닿음을 향한 갈망과 그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의미망으로 끌어안고 있다.

그런데 초기 시문학의 이 ‘추위’ 모티브가 중기 시문학에서는 신과 자아의 ‘절대적인 거리감’으로 바뀌어 재등장한다. ㉠과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종의 갈망이 1933년 『가톨릭청년』 1호에 발표된 종교적 산문 ㉢에서는 고식 성당의 침탑과 그것이 가리키는 하늘, 그 사이의 “어르만질 수 없고 폭 안기일 수도 없는 <거대한> 향수”로 표현되고 있다. 하늘과 맞닿고자 하는 저 본질적인 갈망 이면에 ‘지상(자아)하늘(절대자)’의 절대적 거리감에 대한 ‘회의’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좁힐 수 없는 간극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그네처럼 화강석 차디찬 피부에 뺨을 부”는 것뿐이다. 이때 시인이 느끼는 차가움의 촉각은 맞닿음의 불가능성을 재확인하는 절망감(추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다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초기 이미지즘 시문학에서 시인이 함몰되어 있던 ‘추위’, 혹은 ‘추위’로 상징되는 모종의 부정성이 중기의 종교적 시문학에서 급격히 해소된다는 점이다. 이때 ‘추위’ 모티브의 대척점에서 나타나는 모티브가 ‘흰빛’이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추위/흰빛, 회의/믿음, 뿌리뽑힘/뿌리내림, 이리저리 떠돌/제자리서 돌고 돌, 절대적 거리감/마주 닿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㉔을 다시 살펴보자. 이 산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가톨릭 입교 전 우울한 산책자였던 시인과 절대자에게 귀의한 프랑스 신부의 발걸음의 차이이다. 뿌리 뽑힌 채 이리저리 떠도는 “회의증스런 발”과 깊이 뿌리내린 듯 제자리서 “돌고 도는” 발걸음의 대비는 정지용의 중기 시문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절대적 거리감에 직면하여 부유하는 시인의 발걸음과 달리 프랑스 신부의 발걸음은 성스럽고 평온하다. 해바라기 꽃처럼 고개를 들고 해를 향하여 굳건히 도는 그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시인은 “이이는 뉘를 향해 보이지 않는 백금원주를 고요히 짓느냐?”라는 의문에 빠진다. “백금원주”라는 이 독특한 비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기의 종교시 ㉔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백금’이라는 ‘흰빛’은 ‘지상/하늘, 인간/신, 자아/절대자’의 맞닿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신앙)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㉔에서 시적 자아는 고요히 영혼의 “백금팽이”를 돌린다. 해바라기처럼 “한가운데 도라가는 太陽”을 따라 돈다는 점에서 그것은 ㉔의 “백금원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시적 자아의 영혼이 프랑스 신부처럼 제자리서 돌고 돌며 ‘하양계’ 빛날 수 있는 것은, 바다에 하늘이 살포시 내려앉는(수평선)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즉, “백금”이라는 흰빛은 ‘자아/절대자’가 긴밀하게 연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그 종교적 희열과 관계있다.

지금까지 ‘추위/흰빛’의 모티브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후기 시 해석에 앞서 굳이 여기에 지면을 할애한 것은 ‘추위’와 ‘흰빛’이 이른바 산 연작에 공통으로 내재된 모티브이기 때문이다.

㉔ 絶頂에 가까울수록 백국채 꽃기가 점점 消耗된다.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 우에서 목아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花紋처럼 版막힌다. 바람이 차기가 咸鏡道끝과 맞서는 데서 백국채 키는 아조

20) 김정수, 「정지용의 가톨릭시즘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2017, 309~310면.

없어지고도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辰처럼 爛漫하다. 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리지 않아도 백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 「백록담」 1연(1:207)

㉔ 가재도 괴지 않는 白鹿潭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一抹에도 白鹿潭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찰 포긴 白鹿潭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祈禱조차 잊었더 나라.

- 「백록담」 9연(1:209)

㉕ 밤이 깊어졌을 때, 아득한 정상에서 나의 시계는 슬프게 조율하며 돌고 있었다. 은(銀)귀뚜라미처럼, 재깍재깍 산정(山頂)의 밤을 맞물고 있었다. 바람이 화살처럼 흘러갔다.

그렇다. 해발 삼천피트의 산정에서 나는 차금(借金)증서를 부인한다. 하지만 시계가 돌아가지 않는 산정은 없을 것이다. 여기에도 별은 멀리서 노래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은 신비로운 동요다.

- 「춘삼월의 작문」(2:326)

한라산 등반의 시적 기록으로서 「백록담」은 유가적 자연관 속에서 정신적인 ‘상승’을 형상화한 시로 이해되었다. ‘백록담’은 마음의 고요와 맑음, 명증성의 상징이자 시인이 추구하는 정신주의의 극한, 물아일체와 허정무위의 동양적 초월을 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백록담」이 과연 동양적 산수의 세계를 충실하게 그려낸 것인가, 인간과 자연이 자연스레 조화를 이루는 경지를 형상화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논의도 꾸준히 이어졌다. 금동철, 배호남, 남기혁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들에 따르면 「백록담」의 시적 대상은 시적 자아의 내면과 갈등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의 교감(합일)은 쓸쓸하고 수척한 느낌을 자아낸다. 「백록담」의 ‘산’과 ‘호수’는 초월적 시니피에의 담지체가 아닐 뿐더러 자아와 자연이 교감하며 충만해지는 이상향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시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아(자연)의 ‘수척한 모습’은 도리어 이 ‘산’이 “거리감과 단절감이 아니고서는 그려낼 수

없는” 무언가를 뜻한다는 남기혁의 언급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²¹⁾

「백록담」에 대한 주된 해석을 비판하는 논의들의 공통점은 이 시의 자아가 ‘절대적 거리감(이상향의 불가능성으로서 현실의 고통)’이라는 부정성과 직면해 있음을 지적한다는 점이다. 정지용은 후기에 이르러 다시금 초기 시문학의 정신적 고통과 맞닥뜨리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근대풍경』 2권 4호, 1927년 4월에 발표된 일본어 산문 ㉔에서 시인은 “동방의 옛것에 동경하는 마음”(2:325)으로 일본의 산을 오른다. 세속에서 초월하는 심정으로 정상에 이르렀으나 그가 느끼는 것은 ‘차금증서’라고 하는 현실의 부정성이다. “시계가 돌아가지 않는 산정은 없을 것이다.”라던 시인은 끝내 “여기에도 별은 멀리서 노래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고 한탄한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산꼭대기에서조차 별은 ‘멀리’ 있음을, 절대적 거리감(초월의 불가능성)을 자각한 것이다. 여기서 ‘산(정상)’은 하늘과의 ‘간극’을 더욱 뚜렷이 인식하게 만드는 매개체인데, 후기 시 「꽃과뱀」에서도 유사한 모티브가 발견된다. “石壁 깎아질은/안돌이 지돌이,/한나잘 피고 돌았기/이제 다시 아슬아슬”한 산정에 이르러 “이제 별과 꽃 사이/길이 끊어진 곳에/불을 피고 누었다.”(1:217~218)라는 구절이 그러하다. 이 시에서도 산꼭대기는 별(하늘)과 꽃(지상) 사이, “길이 끊어진 곳”이다.

정지용의 시문학에서 ‘산(꼭대기)’이 ‘지상/하늘’의 절대적 거리감과 직면하는 장소라는 사실은 중기의 종교적 모티브인 ‘바다(수평선)’와 비교했을 때 더 확연히 드러난다. 종교시 「바다」의 “물 한을 다흔 銀線 우에/의로운 듯이 날고/나의 思惟는 다시 사랑의 나래를 펴다.”(1:1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은빛(흰빛)’으로 빛나는 수평선은 ‘물/하늘’이 절대적 간극을 뛰어넘어 서로 마주 닿는, “사랑의 나래” 그 자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기 시문학에서 후기 시문학으로의 변화 즉, ‘바다에서 산으로의 이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정지용은 신앙을 통해 ‘하늘(신)/지상(자아)’의 절대적 거리를 좁히려 애썼으나 결국 실패하고, 그것의 불가능성을 뼈저리게 재인식했다.

그러나 ‘신/자아’의 절대적인 거리감을 시인이 다시금 목도했다고 해서, 믿음에 대한 회의와 직면했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학자 폴

21) 금동철, 「정지용의 시 「백록담」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168~169면; 남기혁, 앞의 글, 129~130면, 132면; 배호남, 앞의 글, 166~167면.

틸리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무한한 거리와 맞닥뜨려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고통스런 순간에서야 진정한 의미의 신앙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²²⁾ 다수의 연구는 중기에서 후기 시문학으로 나아가는 정지용의 시적 변화를 신앙의 전면적 포기로 이해하곤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사유가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백록담」의 1연을 읽어보자. 시인의 한라산 등반 과정과 목적을 압축하여 상징적으로 제시하는²³⁾ ㉔에서 시적 자아는 산의 맨 꼭대기인 ‘절정’을 향해 나아간다. 특이한 것은 시의 계절적 배경이 한참 더울 “八月한철”인데도 “바람이 차기가 咸鏡道끝과 맞”선다고 쓸 만큼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곳을 추운 장소로 바꾸어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험지로서의 산을 강조하려다보니 과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전 시문학에서 ‘추위’와 ‘산’이 절대적 거리감과 직면한 자아의 고통과 슬픔을 공통적으로 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둘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이 수척한(추운) 산을 오르며 시적 자아가 목격하는 것은 빼국채 꽃기가 “점점 消耗”되는 모습이다. 이윽고 “바람이 차기가 咸鏡道끝과 맞서는”, 산의 절정에 이르면 꽃기는 “아조 없어 지고”만다. 그러나 짓눌리다 못해 화문같이 지상에 박히게 만드는 이 도저한 삶의 고통 속에서 반전이 일어난다. “八月한철엔 흩어진 星辰처럼 爛漫하다.” 거의 소모되어 사라지기 직전, 해질 무렵에 별처럼 무르익은 ‘흰빛’을 빼국채가 뿜어낸다. 이 모습을 정지용은 “빼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라고 썼다. ‘흰빛’의 모티브를 고개 들어 “제자리에서” 돌고 도는 ‘발걸음’ 모티브와 결합시키고 있다.

‘추위’에 휩싸여 수척한 ‘산꼭대기’, 거기서 시적 자아가 목격하는 ‘흰 빛’과 ‘제자리’서 돌고 도는 ‘발걸음’ 이미지는 이 시가 지극히 종교적인 사유를 다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전 시문학과의 연관성(시적 모티브의 연속성)을 토대로 바라보면, 동양적인 분위기로 그려낸 기독교적 주제의 시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록담」 9연, 산 정상에 고인 호수는 종교적 시 모티브였던 ‘바다(지상과 하늘이 맞닿아 은빛

22) 폴 틸리히, 차성구 역, 『존재의 용기』, 예영, 2004, 226면.

23) 권유성에 따르면, 「백록담」의 1연은 나머지 2연에서 9연에 이르는 등반 과정의 상징적인 크로키(압축·요약)이다. 권유성, 「정지용 「백록담」의 구조적 특징과 아이러니」, 『한국시학연구』 57, 한국시학회, 2019, 128면.

으로 빛나는 수평선)’의 변형이며, 그러므로 한라산 등반은 이른바 ‘흰빛’을 찾아가는 정신적 여정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다만 ㉔을 살피기 전에 언급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전 시기의 시문학에서는 ‘추위/흰빛’이 대립적인 관계를 지녔던 반면, ㉔에서는 오히려 ‘추위’와 ‘흰빛’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절대적 거리감을 완벽히 ‘극복(초월)’하였을 때 마주 닿음의 표상으로서 ‘흰빛’이 솟구치는 게 아니라, 절대적 거리감에서 비롯하는 고통의 해소 없이, 그 지독한 소모(짓눌림) 속에서 흰빛이 힘겹게 “켜든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월의 환희와 희열이 없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라는 시적 자아의 탄식에는 절대적 거리감과 직면하였을 때 경험해야 하는 고통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것이다.

지상과 하늘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높이 오른 뼈국채가 이윽고 흰빛으로 변화하였으나 추위는 잔존하며 짓눌림도 그대로이다. 지상에 화문처럼 박혀 별빛을 흐드러지게 피울 뿐이지, 이대로 승천하여 저 하늘의 별이 된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적 자아는 답답히 그 모습을 바라볼 뿐, 과장된 기쁨을 드러낸다거나 합일의 상태를 과하게 갈구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뜻 모를 공허함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백록담」의 마지막 연 ㉕은 바로 이 공허함에 대한 시적 고백이다. 산의 맨 꼭대기에서 시적 자아가 목격하는 것은 백록담의 푸른 물에 하늘이 맞닿아 ‘도는’ 모습이다. 중기의 종교시였으면, 온갖 감탄사를 발하며 신의 은혜를 찬양하였을 것이나 그의 시선은 이내 일말의 실구름에도 흐려지는 백록담의 쓸쓸한 풍경으로 옮겨간다. 하늘과 인간 사이의 간극과 그로 인한 실존적 불안을, 은총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으로 손쉽게 해소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신과의 절대적 거리감을 ‘기도’ 대신 곱씹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적 자아가 지나친 절망감에 함몰되어 무기력하게 체념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또 아니다. 그저 답답히 아주 오래 백록담을 직시할 따름이다. 마치 함부로 기뻐하거나 함부로 슬퍼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공허하게 놔두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는 시적 자아의 이러한 태도가 후기 시문학을 관통하는 정지용의 종교적 사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시를 살펴보자.

㉕ 伐木丁丁 이랬거니 아람도리 큰솔이 배혀짐죽도 하이 골이 울어 멩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죽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피스새로 울지 않아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
려 흰 뜻은 한밤 이골을 거름이란다? 우스절 중이 여섯판에 여섯번 지고 웃고

올라 간뒤 조찰히 늙은 사나히의 남긴 내음새를 좇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

- 「장수산」(1:204)

「장수산」은 동양적인 정신을 향한 정지용의 시적 지향성을 잘 드러내는 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㉔의 ‘고요’ 또한 세속적인 것에서 초월한, 고고하고 유희한 정신의 극한으로서 은일의 미적 원리를 뜻한다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고요’보다 ‘시름’에 초점을 두고 ㉔을 새로이 해석하려는 시도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기는 했다. 가령 배호남에 따르면, ㉔의 시적 자아는 “스스로 동경해마지않는 동양적 전통의 정신세계에 합일하지 못하고” 시름 속에서 심히 흔들리고 있으며, 이 시름은 “은일 속에서도 정지용이 차마 벗어놓지 못한 현실인식”에서 비롯한다. 시대적 상황의 중압감과 절망감이 은일(초월)하고자 하는 시인의 욕망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²⁴⁾ 그렇다 하더라도 ㉔의 ‘고요’가 지극히 동양적인 정신의 경지를 상징하며 그것을 시적 자아가 동경하고 있다는 식의 전제가 시 해석의 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시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기존의 해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장면을 쉬 포착할 수 있다. “다람쥐도 좇지 않고 피새로 울지 않아 깊은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와 “바람도 일지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이 두 구절에서 무엇보다 시적 자아를 위협하는 것은 장수산의 ‘고요’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고요’는 사람은커녕 다람쥐조차 보이지 않고 하다못해 그 혼한 산새소리마저 들려오지 않을 만큼, 세계가 행하니(마치 죽음에 이른 듯) ‘텅 비어 있음’을 드러내는 적막함(생명력 상실)의 표지이다. 그리고 시적 자아는 그 차가운 ‘텅 빔’과 직면하여 뼈까지 저리는 추위에 휩싸인다. 마치 문풍지 틈새로 들이닥치는 찬바람 때문에 ‘심히(아주 깊게)’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일렁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㉔의 ‘고요’는 동양적인 정신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실존의 근원적인 비극성으로서 ‘공허(무의미·무력감·비참·결핍·죽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적어도 그것은 「백록담」에서 뼈국채의 생명력을 무겁게 짓누르고 소모시켜버리는 중압감에 더 가까운 의미를 지

24) 배호남, 앞의 글, 160~161면.

났다. 시의 마지막 구절인 “오오 견디란다 차고 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에서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와 “깊은산 고요”의 의미는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長壽山속 겨울 한밤”에 대한 시적 자아의 태도이다. “오오 견디란다 차고 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오직 견디고자 한다. 문제는 이 견딤의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다는 데 있다. “오오 견디란다”라는 시적 자아의 굳센 선언과 “슬픔도 꿈도 없이” 자포자기해버린 그의 심정은 그 자체로 이미 모순이기 때문이다. 슬픔도 꿈도 없으니(공허), 포기해야 마땅한데 끝끝내 견뎌내겠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저 구절에서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은 겨울 한밤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도 외로이 우뚝한 모양으로 서 있는 장수산이다. 장수산은 추위에 의해 자신의 생명력이 소모되면 소모되는 그대로, 소모되다 못해 풀 한 포기 나지 않을 만큼 텅 비어가면(고요) 비어가는대로, 그야말로 “슬픔도 꿈도 없이” 오직 묵묵히 견딜 뿐이다. 이와 유사한 삶의 태도를 보인 존재가 「백록담」 1연의 ‘백국채’다. 백국채는 산의 절정에 가까울수록 거세지는 바람에 결코 저항하지 않는다. 주체적으로 찬바람을 극복(회피/초월)하려는 대신 오히려 거센 바람에 짓눌리면 짓눌리는 대로 끝끝내 “花紋처럼 版박”히도록 제자리에 피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도저한 순종 끝에 “星辰처럼 爛漫하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장수산과 백국채. 이 두 사물의 공통점은 생기 없는 채 수척한 모습으로 소모(상실)되면서도 주어진 고난을 손쉽게 회피하거나 초월해버리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가진 것 전부를 앗아가는 그 고통에 스스로를 순순히 내맡기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실존의 본질로서 삶의 비극성(‘신/인간’의 절대적 간극과 그로 인한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값싼 위로(슬픔)나 거짓 충만함(합일의 꿈)으로 망각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묵묵히 순응하고자 할 뿐인 것이다.²⁵⁾

25) 순호현에 따르면, 신의 부재와 맞닥뜨렸을 때 경험하는 그 공허함을 함부로 채워서는 안 된다. 거짓으로 스스로를 위안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빈터’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마치 피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속이 비어있어야 하듯이, 충만함을 거부하고 내적 ‘비움’을 유지해야만(견디어내어야만) 그 성스러운 빈터로 절대자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신의 도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항상 메마르며 비어있으며 공허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정지용의 후기시와 주된 시적 소재인 자연(시적 자아까지 포함하여)을 휩싸고 도는 ‘쓸쓸함’의 정서는 이러

시몬 베유는 신앙의 진실한 태도로서 순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들판의 나리꽃들을 지켜보아라.”(마태복음 6:28)에서 나리꽃은 자기 뜻대로 “어떤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필연성이 가져다 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들판의 나리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화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이다.”²⁶⁾ ㉔의 “오오 견디랴다 차고 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순종을, 신앙적 태도로 견지하겠다는 결심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수산이 품은 ‘고요’, “長壽山속 겨울 한밤내”는 본고의 2장 말미에서 언급했던, ‘어둔 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떠올리게 한다. 신의 부재와 직면하였을 때, 영혼은 텅 빈 듯한 공허와 극한의 외로움에 시달린다. 이는 언뜻 신앙의 영적 퇴행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무기력하며 비참한 공허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원(무한)’에 이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자가 자신의 얼굴을 감추어버린 이 부재의 시대에 부동성을 잃지 않는 항심의 바위산, “차고 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고요해지고자 하는 ㉔의 마음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추위(어둔 밤)로 상징되는 삶의 비극성,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종교적 자세이다. 이것이 ‘회피/초월’과 다른 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고통에서 해방(극복)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갈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절대적인 수동성’을 견지하며 견디고자할 뿐, 고통으로부터 함부로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정지용의 ‘순종’이다. 이를 통해 보건대 정지용의 후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의 핵심은 현실의 고통을 관념적인 은총이나 거짓 위안을 통해 ‘회피/초월’하려 들거나 그 존재론적인 공허함을 부질없이 채우려 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유하자면 「朝餐」의 “서러운 새 되어/흰 밥알을 쫓”(1:213)듯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지키고자 하는 데 있다.

한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호현의 논의는 「한 멋진 삶의 풍경화: 유동식의 예술신학연구」,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10, 2007, 126~127면, 참조.

26) 시몬 베유, 앞의 책, 490, 536면 참조.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정지용의 후기 시문학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점점 속에서 창출되는 시적 사유의 독창적 면모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이른바 후기 정신주의에 깃든 시인의 기독교적 성찰을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미의 종교성에 대한 확신, ‘아름다움/성스러움’의 동근원성에 대한 확신이 깔려있다. 시는 무엇보다 절대자와 자아의 관계(신앙)를 궁극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시인은 유한한 사물을 통하여 무한을 발견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적 정신주의의 골자이다. 정지용에게 개개의 시작품은 무한한 정신과의 성육신적 일치였으며 그러므로 시작은 유한한 것(제약)을 통해 무한한 것을 드러내는(비약) 것을 목표로 삼는 수밖에 없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제약을 통한 비약’이라는 이 시적 원리가 단순히 시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미적 사유를 넘어 신앙에 대한 성찰과 깊이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것은 유감과 환난을 인내하며 존재의 유한성(제약)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순종’을 통해서만 무한한 존재와의 만남(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독교적 사유를 내재한다.

3장에서는 이전 시기부터 면면히 이어져온 ‘추위/흰빛’의 모티브를 통해 「백록담」, 「장수산」 등을 분석하고, 숨겨진 뿌리처럼 있는 종교적 사유의 자취를 살피고자 하였다. 초기 이미지즘 시문학의 대표적인 시적 모티브 ‘추위’는 ‘안뻘’으로 나뉜 두 세계의 맞닿음을 향한 갈망과 그것의 불가능성에 대한 뼈아픈 인식을 의미망으로 끌어안고 있다. 반면, 중기 종교적 시문학의 ‘흰빛’은 ‘자아/절대자’의 마주 닿음에서 오는 그 종교적 희열과 관계있다.

흔히 「백록담」은 한라산 등반의 시적 기록이자 유가적 자연관 속에서 정신적인 ‘상승’을 형상화한 시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전 시문학과와의 연관성을 토대로 바라보면, 「백록담」의 한라산 등반은 이른바 ‘흰빛’을 찾아가는 정신적 여정에 더 가깝다. 동양적인 분위기로 그려낸 기독교적 주제의 시작품인 셈이다. 다만 이전 시기의 시문학에서는 ‘추위/흰빛’이 대립적인 관계를 지녔던 반면, 「백록담」에서는 ‘추위’와 ‘흰빛’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인다. 절대적 거리감을 완벽히 초월하였을 때 ‘흰빛’이 솟구치는 게 아니라, 절대적 거리감에서 비롯하는 그 지독한 소모 속에서 ‘흰빛’이 힘겹게 켜든다. 그래서 여기에는 초월의 환희와 희열이 없다. 「백록담」의 시적 자아는 하늘과

인간 사이의 간극과 그로 인한 실존적 불안을 맹목적인 찬양으로 해소하려 들지 않고, 오히려 신과의 절대적 거리감을 곱씹는다. 이 독특한 태도의 신학적 의미는 「장수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장수산은 겨울 한밤의 지독한 추위 속에서 외로이 우뚝한 모양으로 서 있다. 장수산은 추위에 의해 생명력이 소모되면 소모되는 그대로, 그야말로 슬픔도 꿈도 없이 견딜 뿐이다. 삶의 비극성을 값싼 위로나 거짓 충만함으로 망각하려는 시도마저 거부하고, 그저 순응하고자 할 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고 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견디고자 하는 정신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무한에 이르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이다. 본고는 이처럼 신이 부재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론적인 허무와 답답히 마주하고자 하는 저 종교적 태도야말로 정지용이 후기 시문학을 개진하는 동안 고심했던 신학적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지용, 최동호 편, 『정지용 전집』, 서정시학, 2015

손호현,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동연, 2015

시몬 배유, 이희영 역, 『중력과 은총』, 동서문화사, 2017

폴 틸리히, 차성구 역, 『존재의 용기』, 예영, 2004

권유성, 「정지용 「백록담」의 구조적 특징과 아이러니」, 『한국시학연구』 57, 한국시학회, 2019
김동철, 「정지용 후기 자연시에 나타난 기독교적 자연관」,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
회, 2007

_____, 「정지용의 시 「백록담」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우리말 글』 45, 우리말글학회, 2009

김유중, 「정지용 시 정신의 본질」,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

김정수, 「정지용의 가톨릭시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2017

김정현, 「정지용 후기 시에 나타나는 ‘자연’ 이미지의 다층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49,
한국현대문학회, 2016

남기혁, 「정지용 중·후기시에 나타난 풍경과 시선, 재현의 문제」, 『국어문학』 47, 국어문학
회, 2009

배호남, 「『백록담』의 시형식 연구」, 『한국시학연구』 35, 한국시학회, 2012

손호현, 「아름다움과 성스러운: 존재 유비로서의 예술과 예수」, 『신학사상』 165, 2014

_____, 「한 멋진 삶의 풍경화: 유동식의 예술신학연구」, 『한국문화신학회 논문집』 10, 2007

유재경,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적 성장에 대한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0, 한국기독교
학회, 2010

진립, 「정지용 시론에 나타난 전통지향의식」, 『문예시학』 27, 문예시학회, 2012

최동호, 「산수시의 세계와 은일의 정신」, 『민족어문연구』 1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_____, 「정지용의 산수시와 성정의 시학」,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 이화여자대학교 한
국어문학연구소, 2003

최승호, 「정지용 자연시의 은유적 상상력」, 『한국시학연구』 1, 한국시학회, 1998

허운, 「정지용 문학의 가톨릭시즘과 역사의식」, 『민족문학사연구』 53, 민족문학사연구소, 2013

Review on Christian Thinking in later Poetry of Jeong Ji-yong — Focusing on Endurance with Absolute Passiveness (obedience)

Kim, Jeong-s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uniqueness of Jeong Ji-yong's christian worldview presented in poems written in his late life. Belief on religiosity of beauty, so-called 'Spiritism', is the foundation of his poetry. The core of his poetic spiritism is that a poem should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bsolute and the self as the ultimate subject and a poet can found infinite in a finite object through the process. 'Spiritism' contains the thinking that we can meet the Infinite only through obedience, which endures sufferings and accepts finite of the existence without questioning. For example, the poetic theme of 'Baekrokdam' and 'Jangsusan', which represent poetry, is such consideration. In poems, he does not avoid or transcend sufferings and refuses attempts to forget sufferings with worthless comfort or false fulfillment. He just tries to find the value of submissive attitudes. The spirits of endurance contains 'obedience', which makes people reach at the Infinite by admitting powerless as creatures and accepting suffering as a whole. This paper found that the theological theme shown in his poems is the religious attitude to confront ontological emptiness under desperate circumstance with non-existence of the God.

Key Words : Jeong Ji-yong, a late poetry, Christian Thinking, Obedience, Endurance, theological theme

